

광주도 '대리 구매' 성행...범죄 악용 우려된다

수고비 받고 대신 구매...타이거즈 굿즈·유명 제과 등 다양 미성년 술·담배·성인용품·마약 등 대리구매 늘어 대책 시급

광주지역에서도 웃돈을 주고 물건을 대신 구매하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대리 구매'가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일타 스캔들'에서 보여준 일타 강사 수업 '대리 줄서기' 모습이 광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 줄서기'란 피고용인이 돈을 받고 입장 혹은 판매 줄을 대신 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살수 없는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성인까지 있어 대리 구매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보호법 위반(술 판매)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327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된 건수만 한해 평균 100건 정도지만,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여건이 맞지 않아 제3자를 통한 '대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 왔지만 최근에는 거리, 연령 등 다양한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이들이 웃돈을 얹어 '대리 구매해 줄' 이들을 구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광주지역 맘카페와 팬카페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SNS에서도 '대리 구매'를 검색하면 해시태그와 함께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줄 이들을 찾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위터에서는 '#광주 대리구매, #광주대리구, #광주대리구(대리구매의 은어), #광주대리대리' 등의 해시태그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뽕쇼'가 열린 지난 24일 광주지역 맘카페에서는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이들의 대리구매 요청 글이 올라왔다. 원하는 품목을 대신 구매해 전달해주면 가벼운 기프티콘 등을 주고받는 경우였다.

KIA타이거즈 팬카페에서도 KIA 선수 '굿츠'(마케팅을 위해 출시하는 기획상품-제품) 대리구매가 한창이다. 주로 타 지역에 있거나 구매 순번을 놓친 KIA팬들이 현장(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혹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 유니폼, 포토카드, 마킹(이름표) 등을 얻기 위해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거래는 오픈카톡 링크와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에서 이뤄진다. 선수 이름과 옷 사이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사례비로 1만원 내외를 받고 물건을 대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포토카드의 경우 2배 값으로 지불하거나 배지 등과 교환하기도 한다.

대리구매를 통해 받은 굿즈를 게시글로 인증하거나 '다른 회원님 덕분에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은 좋은 기억이 있어 (대리구매를) 무료로 해드리고 싶다'며 자처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마니아들도 대리구매를 통해 갖고 싶은 굿즈를 손에 넣고 있다. 광주에서 판매하는 만화책 혹은 응원봉 등을 웃돈을 얹어가며 구매하는 것이다. 굿츠의 경우 물건 값에 수고비와 배송비까지 더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구매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용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으며 대리구매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용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성인들이 많다.

광주지역 커뮤니티나 SNS상에도 담배와 술, 성인용품 등 미성년자 구매가 제한돼 있는 물품을 요청하거나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가격과 제품명, 장소 등을 제안

하며 접근한다. 술 한 병, 담배 한 갑 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전자담배는 기본 가격에 최대 1만 3000원까지 더해 판매되고 있다.

갖고 있는 담배 목록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대리구매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다. 주로 용돈벌이를 위한 것으로 정해진 판매 양식이 있고 주기적으로 계정에 업로드 한다. 이들은 거리(km)에 따라 1000원씩 배달비까지 받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를 유해환경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2차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청소년 마약범죄도 이러한 대리구매 방식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리구매 시 '여자는 무료', '여자만 가능' 등 특정 성별을 지칭하며 '만남'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성별을 이용한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원하는 물건을 얻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기 호기심과 충동성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SNS를 통한 계도 행정, 예방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마을RE 디자인 아카데미 광주 동구 참여자 모집

광주 동구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계림1동 마을 디자인 프로그램 '마을RE(里) 디자인 아카데미' 참여자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계림1동은 동구청이 추진하는 푸른개미마을 새뜰사업 지역이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7억 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대상지 내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과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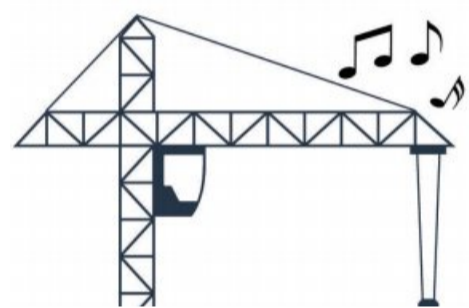
'마을RE(里) 디자인 아카데미'는 이 사업의 연장선으로 진행되며 지역 특성과 이미지를 시각화해 마을을 알리는 브랜딩 기초교육, 브랜드 스케치 등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 등 강좌를 한다. 강좌는 매주 월·목요일 오후 4-6시에 진행되며 총 9회 열릴 계획이다.

계림1동을 포함해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2021blue-ant@daum.net)로 제출하거나 계림동 푸른개미마을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새뜰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여름 철새 삐꾸기 무각사에 출몰?

'5·18 공원에서 울린다' 잇단 제보
알고보니 타워크레인 경보 소리
"기후 위기인 줄 알았는데 다름"



'삐꾸 삐꾸 여름 오네/ 삐꾸기 소리 첫 여름 인사'

삐꾸기가 울면 여름이 온다는 동요 가사처럼 삐꾸기는 5월께 만나볼 수 있는 여름 철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와 5·18 기념공원에서 삐꾸기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제보가 광주일보에 수십 건 접수됐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4일 조류 전문가와 함께 공원을 가보니 실제로 '삐꾸 삐꾸'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어디선가 들려오는 삐꾸기 소리를 놓고 '소리가 좋다'며 학창시절 배운 삐꾸기 동요를 떠올렸다. '겨울이 따뜻해져 여름 철새인 삐꾸기가 빨리 나타난 것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삐꾸기 소리는 공원 옆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녹음 소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삐꾸기 소리는 해당 공사장에 있는 타워크레

인에서 건축 자재를 옮길 때 주변 작업자에게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사장 관계자는 "시끄러운 공사현장에서 다른 새소리보다 삐꾸기 소리가 작업자들에게 잘 들려 옛날부터 사용해왔다"며 "공사현장 인근이 공원이다 보니 삐꾸기가 일찍 왔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현 전남대 조류학 박사는 "공사장에서 나는 삐꾸기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 똑같지만, 실제 삐꾸기가 우는 소리는 매년 조금씩 다르다"며 "삐꾸기가 나타났다면, 삐꾸기가 먹는 곤충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민 강모씨(여·57)는 "실제로 삐꾸기가 나타났다면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서 오히려 찜찜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튀르키예에 희망을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삼일절을 앞둔 27일 태극기를 흔들며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내일 곳곳서 3·1절 기념식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식을 연다.

광주시는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자중학교 윈스브로우홀 앞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수피아여중-고는 1919년 광주지역 3·1만세운동의 발원지로 꼽힌다. 당시 윤형숙 열사 등 학생 23명이 항일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학교 차원에

서 신사참배를 거부해 자진 폐교를 하기도 했다. 또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도 독서회 등을 통해 항일 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수피아여고 학생회장 등 4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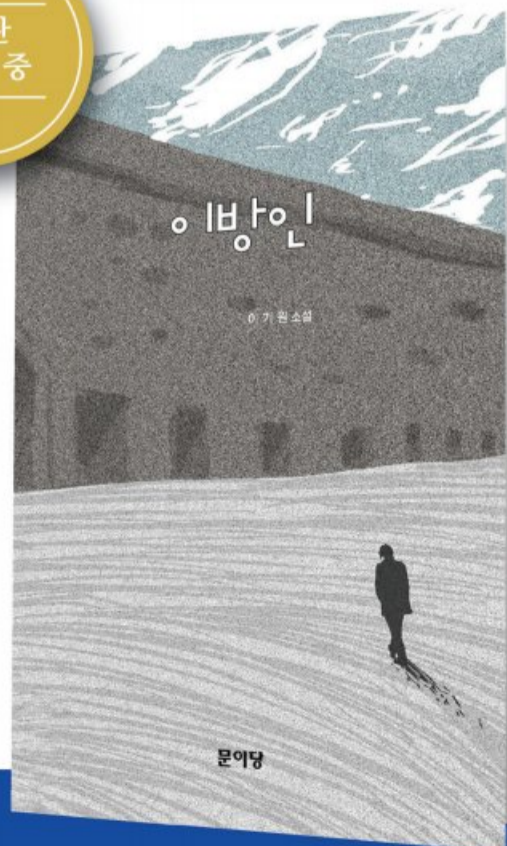
유공자 6명에게 건국포장(1명), 대통령 표창

(2명), 시장 표창(3명)을 수여하는 행사도 치러진다. 고(故) 조순창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지주들에게 소작료 경감을 요구하고 가옥명도(家屋明簿) 강제 집행을 방해하는 등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유공으로 건국포장을 받는다.

전남도는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김대중당당에서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하고 3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절판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